

## 추석 명절 대비, 제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세심히 챙겨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제주항국제여객선터미널과 연안여객선 점검
- 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 강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7일(화) 제주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제주지역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강 장관은 제주국제여객터미널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장소의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소화 장비의 비치·관리, 피난 대피로 등 다중이용시설의 각종 안전 설비들을 점검했다.

이어서, 목포와 제주를 운항하는 여객선 ‘퀵제누비아2호\*’에 승선하여 여객선의 시설·설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출항 전에 이용객에게 안전 수칙을 적절히 안내하고 있는지도 점검하였다. 또한, 여객선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 퀵제누비아2호 : 씨월드고속훼리(주) / 목포-제주(일일 1회 왕복, 편도 4시간) / 26,546톤

강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제주지역은 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항로인 만큼, 많은 여객이 집중되는 추석 기간에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본격적인 연휴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여객선 설비나 시설에 안전상 부족한 점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안전 수칙은 철저히 지키도록 여객들에게 안내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유윤진 (044-200-5738)